

SK, 9월9일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진행

국내 최대의 정유기업인 SK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국세청은 9월9일부터 약 3개월간의 일정으로 SK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.

이에 SK 관계자는 “통상적으로 5년마다 받는 정기세무조사일 뿐”이라고 밝혔다. SK는 2000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.

국세청은 최근 들어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여 현대자동차, 포스코, 현대엘리베이터, 신한은행, 대림산업, 한화건설, LS전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<화학저널 2005/10/17>